

간송(澗松)과 우리 문화유산

오세현

1. 출생과 성장

간송(澗松) 전형필(全鏐弼, 1906-1962). 그의 집안은 배우개(종로4가)에 터를 잡고 지역 상권을 장악한 부유한 가문으로, 증조부 때부터 이미 왕십리·답십리·청량리와 송파 가락동, 강북 구 창동 일대 등 서울을 비롯해서 황해도 연안, 충청도 공주와 서산 등 전국에 땅을 소유한 채 수만 석 추수를 받는 대지주 가문이었다. 간송은 그런 부잣집에서 2남 4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특히 손(孫)이 귀했던 집안에서 늦둥이 막내 손자로 태어난 간송은 탄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다.

그런데 1915년 생가의 조부가 간송의 생일 전날 돌아갔고, 다음 해 양가의 조모가 돌아가며 오랫동안 부귀를 누리던 간송의 집안에 먹구름이 찾아 들기 시작했다. 간송 가문의 불행은 간송이 어의동보통학교에 입학한 그 해 말 다시 찾아 왔다. 양가의 조부가 형님과 부인의 뒤를 따라 돌아가고, 다시 두 달 뒤 생가의 조모가 별세한 것이다. 수만 석 거부로 부귀를 누리던 간송의 생가와 양가 조부모가 3년 사이에 모두 돌아갔다.

간송 집안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1919년 간송의 양부(養父)가 갑자기 돌아갔고, 14살의 어린 간송은 졸지에 상주가 되었다. 게다가 간송의 유일한 친형 전형설(全鏐髙, 1892-1919)이 불과 28세의 청년으로 아들을 두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갔다. 날벼락 같은 이 일로 이제 생가와 양가를 통틀어 간송은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

어의동보통학교를 졸업한 간송은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간송은 휘문고보 시절 야구 선수로 맹활약했는데,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간송은 책 읽기를 좋아해 서점을 순방하며 새로 나온 신간은 물론 오래된 한적들을 사 모으는 취미를 지녔다. 간송이 훗날 「수서만록(蒐書漫錄)」이라는 수필에서 ‘나의 수서(蒐書)에 큰 힘이 된 것은 오로지 가족들의 많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내가 책을 옆에 끼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셨을 뿐 싫은 낯을 하신 일이 없다.’ 라고 추억했다. 물론 독서를 좋아해 오래된 책들을 사기도 했지만, 간송은 책 자체를 모으는 골동의 취미도 있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던 듯하다. 이런 수서벽(收書癖)이 장차 간송으로 하여금 우리 문화재들을 수집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1925년 졸업반인 5학년에 올라간 간송은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준비했는데, 조선을 식민통치하고 있는 일본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926년 3월 휘문고보를 졸업한 간송은 와세다대학 법과에 입학했다. 그런데 간송의 와세다대학 유학은 쉽지 않았다. 고국에서는 갑부의 외동아들이자 공부 잘하고 운동까지 잘해 다재다능한 만능의 귀공자였지만, 동경 유학

시절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없었다. 식민지 백성이 당해야 하는 수모와 멸시 뿐만 아니라 앞길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간송은 방학이 되어 고국에 돌아오면 장차 어떻게 앞날을 헤쳐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며 뜻있는 선배와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당시 간송이 가장 자주 찾아다니며 울분을 털어 놓았던 사람은 휘문고보 시절의 미술 선생님이던 고희동(高羲東, 1886-1965)이었다. 간송의 예민한 감성을 잘 알고 있던 고희동은 휘문고보 시절 간송을 극진히 사랑했다. 자신이 최초의 동경 유학생이 되어 동경 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돌아와 전통적인 동양화로 전향했기 때문에 간송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다. 고희동은 간송의 포부를 대강 짐작하고 이 암흑시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와 얼이 깃들어 있는 문화유산을 수호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희동을 통해 문화유산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간송은 또 하나의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다. 오세창(吳世昌, 1864-1953)과의 만남이었다. 오세창은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중 한 명으로, 그의 부친 오경석(吳慶錫)을 통해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대 그림과 글씨의 역사를 총정리한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5권 1책)을 지은 대학자로서 문화유산에 대한 높은 감식안을 지녔다. 23세의 대학생 전형필은 43세의 장년화가 고희동을 따라 65세의 노대가 오세창을 만났다. 이를 계기로 간송은 오세창의 문하에 드나들며 김정희 이래로 전수되던 고증학을 익히고 더불어 서화골동의 감식안을 키워 나가며 글씨와 그림도 배워나갔다.

간송은 대학 졸업반에 올라가던 해인 1929년 초봄 부친상을 당했다. 보통학교 졸업 때처럼 다시 상복을 입은 채로 대학을 졸업했다. 이제 간송은 생가와 양가에 남은 유일한 혈손으로 수 만석이 넘는 두 집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2. 보화각(葆華閣) 설립

간송의 문화재 수집은 27세 되던 1932년 즈음부터 시작되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다 해도 기업인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인 컬렉터들과 경쟁해야 했기에 청년 간송에게 문화유산을 수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간송의 후견인으로 오세창이 있었고, 오세창의 소개로 만난 거간(居間) 이순황(李淳璜)은 정직하고 확실한 사람이었다. 이순황이 문화유산을 소개하면 오세창이 감정하여 구매에 조언을 했기에 경험이 없던 간송의 문화재 수집에 실수가 적을 수 밖에 없었다.

1934년은 간송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 문화유산 수집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이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장소도 물색하고 있던 차에 그에 합당한 터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성북동 정중앙 요지 만여 평을 구입하고, 오세창은 ‘북단장(北壇莊)’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간송은 이 해부터 경성미술구락부에서 행하는 골동품 경매에도

참여했다. 지금도 간송미술관 입구를 지키고 있는 석호(石虎) 한 쌍, 〈청자상감운학문유대급개발〉, 〈조선백자유개향합〉, 〈조선백자희준〉, 〈청화백자진사재슬형투각운룡문연적〉 등이 모두 그 해에 경매를 통해 구입한 문화유산들이다.

1935년에는 고려청자를 대표하는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68호)을 일본인 골동상에게서 구입했고, 1936년 경매에서는 〈청화백자양각진사철채난국초충문병〉(국보294호)을 구입했다.

경매에서 일본의 여러 거상(巨商)들과 경쟁하던 간송은 국내의 여러 구가(舊家)들에 비장되었다 흘러나오는 문화유산들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1936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 관훈동에 있던 고서점 한남서림(翰南書林)을 인수했다. 그리고 이곳을 근거로 하여 고서 및 서화류 등의 문화유산 매입 창구로 운영했다.

30대의 간송이 이처럼 우리 문화재의 수집과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 조선총독부는 1936년 12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여 광복 의지가 분명한 민족지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감금하며 민족 말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며 우리 문화를 소멸시키려 했고, 나아가 중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일본의 전쟁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들 중에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이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와중에 간송은 뜻밖의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 존 개스비(Sir. Jhon Gadsby)라는 영국인 변호사는 동경에 살면서 오랫동안 최고급 고려청자들을 수집해서 그 컬렉션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런데 개스비가 일본의 상황을 우려해 귀국하려고 하면서 그 전에 소장품 대부분을 처분하려 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간송이 직접 일본으로 가서 개스비를 만나 거금을 지불하고 그의 소장품 대부분을 인수해 왔다.

이로 인해 간송의 도자 컬렉션은 최고 수준이 되었다. 〈청자기린형향로〉(국보65호),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국보66호), 〈청자오리형연적〉(국보74호), 〈청자원송이형연적〉(국보270호), 〈청자상감포도동자문매병〉(보물286호), 〈청자상감국모란당초문모자합〉(보물349호), 〈백자박산향로〉(보물238호) 등이 일거에 간송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간송은 개스비의 소장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충남 공주에 있던 5천석 전답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일제의 강압 통치가 우리 문화의 말살이라는 방향으로 전면화 하자, 간송은 더욱 적극적인 문화유산 보존 대책을 마련했다. 성북동 북단장 안에 사립박물관 건립을 기획한 것이다. 1938년 윤 7월 5일 보배를 지키는 건물이라는 뜻의 우리나라 최초 사립박물관 ‘보화각(葆華閣)’이 상량식을 치렀다. 75세의 오세창이 정초명(定礎銘)을 지었고, 보화각 완공을 경축하는 조출한 기념식도 열렸다. 보화각 설립 후 간송은 석탑, 석등, 부도 등 규모가 큰 석조물들을 되찾아오는 작업도 시작했다.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인천항에 실어다 놓은 〈괴산팔각당형부도〉(보물579호)가 이 때 보화각으로 이전되었다.

간송이 35세 되던 1940년 2월 11일에는 창씨개명령이 내려졌는데, 일본어 사용과 함께 극단적인 민족 말살정책이 강행된 것이다. 이에 간송은 우리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에 더욱 박

차를 가하는 한편 경영난에 봉착하여 폐교 위기를 맞은 보성고보(普成高普) 재단을 인수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등 독립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보성고보가 일제의 탄압과 간섭으로 사실상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간송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보성고보를 인수하여 새로운 재단 동성학원(東成學園)을 설립했다.

간송이 이처럼 막대한 출혈을 감내하면서도 교육기관을 인수한 것은 일제의 우민정책(愚民政策)에 항거해 우리민족에게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는 목적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할 인재를 양성하려는 포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 여름 간송은 경상도 안동에서 출현한 『훈민정음』 해례본(국보70호)을 거금을 들여 구입했다. 2년 후인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을 일으켜 한글학자들을 일망타진했던 일제가 만일 『훈민정음』을 간송보다 먼저 손에 넣었더라면 어때했을까? 이후에도 간송은 당시로서는 유일본이던 『동국정운』(국보71호)과 지금도 유일본인 『금보』(보물283호) 등을 계속 구입했다.

3. 간송의 유훈(遺訓)

1945년 광복 후 간송은 문화유산 수집 활동을 거의 중단했다. 광복된 조국에서는 누가 소장한다 해도 우리 문화유산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 간송은 문화재보존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6·25의 참화를 직접 겪은 간송은 우리 문화재가 전쟁의 상처를 입으며 곳곳에서 무참하게 파괴된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다. 그렇기에 간송은 문화재보존위원 활동에 상당히 열심히 참여했고, 고적보존과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고적조사여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당시 국립박물관의 간부들이던 이홍직(李弘植), 최순우(崔淳雨), 황수영(黃壽永), 진홍섭(秦弘燮), 김원룡(金元龍) 등과 깊이 사귀었다.

간송은 어질고 넉넉한 인품으로 소장학자들을 항상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간송은 본래 시문서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전통적 문사(文士)이기도 했다.

1950년 농지개혁법안 통과 이후 토지 수용과 이후 보성중고등학교의 재정 사고 등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던 간송은 1962년 1월 26일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다. 병명은 급성 신우염. 침 없이 달려온 우리 문화 지킴이 간송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간송의 문화재 수호와 교육에 대한 공적을 기려 1964년 대한민국문화훈장국민장이 내려졌다.